



박노정 | 시인, 진주 환경연합교문
(nojung21@yahoo.co.kr)

남강의 역사와 문화

강으로 가서 강이 하는 말 / 듣고자 한다 / 제 하던 일 날
새는 가비 오는가 / 가리지 않고 이끌 나게도 하나같이 / 비린
내 나는 피리 새기 데리고 / 뭐라고 소근 거리는 / 강으로가
서 강이 하는 말 듣고자 한다.

- 강희근 시 「강으로 가서」 중에서

나는 지금 진주의 숨결이 담긴 사진첩을 새삼 설레는 마음
으로 들추고 있다. 1999년 진주사진협회가 펴낸 「사진으로
본 진주」는 첫 쪽부터 예전의 그 남강의 정경을 고스란히 보
여주고 있다.

1910년대의 남강 선착장과 1912년 남강에 세운 최초의 배다
리(船橋). 아! 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물
안개 서린 새벽의 남강가에서 불동이에 물을 담아 지고 나르
는 남정네의 모습들.

대숲을 배경으로 하얀 모래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꽃
튀듯한 소싸움 광경, 그때의 떼고함소리 귀에 쟁쟁하다. 무
엇보다 이 시리도록 푸른 남강 물은 넘치게 흘러가고 있는
데…….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삼년 만에 / 시어머니 하
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놀아가 / 진주남군 오실 것이니 진주
남강 빨래가라……”

1980년대인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요즘의 젊은 친구들도
곧잘 부르는 '진주난봉가'의 첫 마디다. 시집살이 민요에 해
당함직한 진주난봉가의 한구절과 연결되는 남강가 빨래터
의 모습은 불과 삼십년 전까지도 볼 수 있던, 눈에 선한 광
경이 아닌가. 6.25 전까지만 해도 진주 권번 기생들의 춤과 노
래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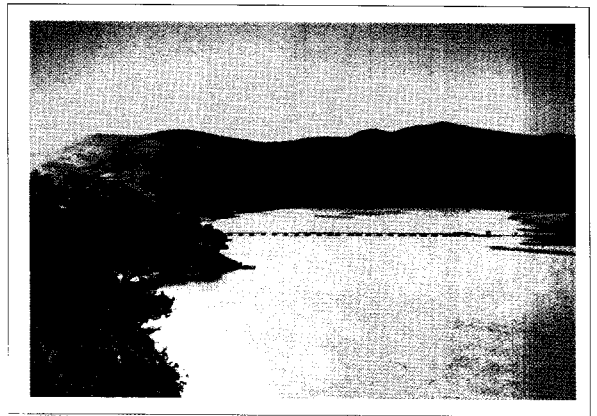
“소년 시절의 나는 새벽마다 안개가 자욱한 남강가에서 권
번 기생들이 창을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다.” 기생들이 목을
퓌우고 있다는 게 어른들의 설명이었다.

-이형기 시인의 글 중에서

그기생 목 퓌우는 소리는 지금 '진주통합시우회' 회원들의
목청 가다듬는 소리와는 사뭇 다른 것인지, 하여간 다시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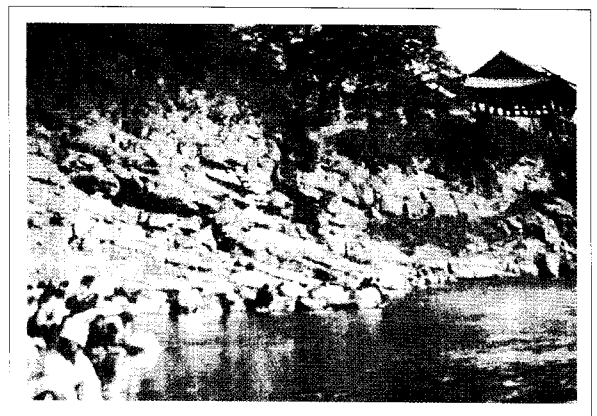
〈그림 1〉 남강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그림 2〉 남강 최초의 배다리



〈그림 3〉 진주 소싸움 전경



〈그림 4〉 축석루 아래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을 수 없다는 아쉬움에 오랜 그리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러러 비봉산에 정기를 받고 / 남강 물 고운 여울 마음에
새겨 / 입진의 조상 핏줄 잇고 또이어...

-조재업 작가「진주의 노래」 중에서

옛 진주 12경이며 신 진주 8경에도 남강은 언제나 그 첫머리에 기록된다. 1996년 진주문화원에서 펴낸 진주예찬(晉州禮讚)에는 고려시대로부터 시작한 한시 500여수와 현대시 150여수가 수록되어 있다.

당연히 빠진 시가 많으리라 여겨 뒷날 증보의 기회를 기다린다고 적어 놓고 있을 정도다. 대부분이 남강을 배경으로 한

빼어난 풍광을 노래했지만, 축석루 진주성 논개를 주제로 할 때는 울분과 기개가 배어 있다. 진주라는 이름이 역사 위에 오른 지 1,000년도 넘는다. 진주를 주제로 한 역사와 문화는 1,000년을 이렇듯 남강으로부터 시작하고 전국으로 흘러 보냈다. 새로운 천년, 만년을 또 이렇게 시작하며 세계로 흘러 보낼지 모른다.

경남 함양군 서상면 남덕유산 1,503m 지점의 '참새미'에서 발원한 남강은 함양군 남계천을 따라 남남동으로 흘러 산청 경호강과 덕천강을 거쳐 진양호에 흘러든다. 이어 의령과 함안군을 흘러 돌아 의령군 지정면 기강나루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데 길이는 총 186.3km에 이른다.



(그림 5) 남강이 통과하는 진주 시가지 전경

조선 명조 연간의 지리학자 신경준(1712~1782)은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만 갈래로 나뉘지는 것이 산이요, 만 가지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물이라고 했다. 물은 곧 통합과 조화의 상징인 것이다.

세계적 문명의 발상지는 하나같이 큰 강을 끼고 있다. 강은 이른바 젖줄로 통하여 활용하기에 따라 풍요를 담보한다. 따라서 강은 역사 생성의 핵이며 그 역사를 지켜보는 파수꾼이 기도 한 것이다.

남강이 노했다. 남강이 열었다. 풀렸다. 남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속에는 진주 천년의 역사와 결코 나뉠 수 없는 남강의 숨결을 엿볼 수 있다. 적어도 남강가에서 생성된 문화는 바로 이와 같은 정서를 기본으로 한다. 남강은 열은 곧 진주의 정신이기도 하다.

남강은 바탕이요 근본이라 그 위에 비로소 축석투와 진주성이, 논개가 설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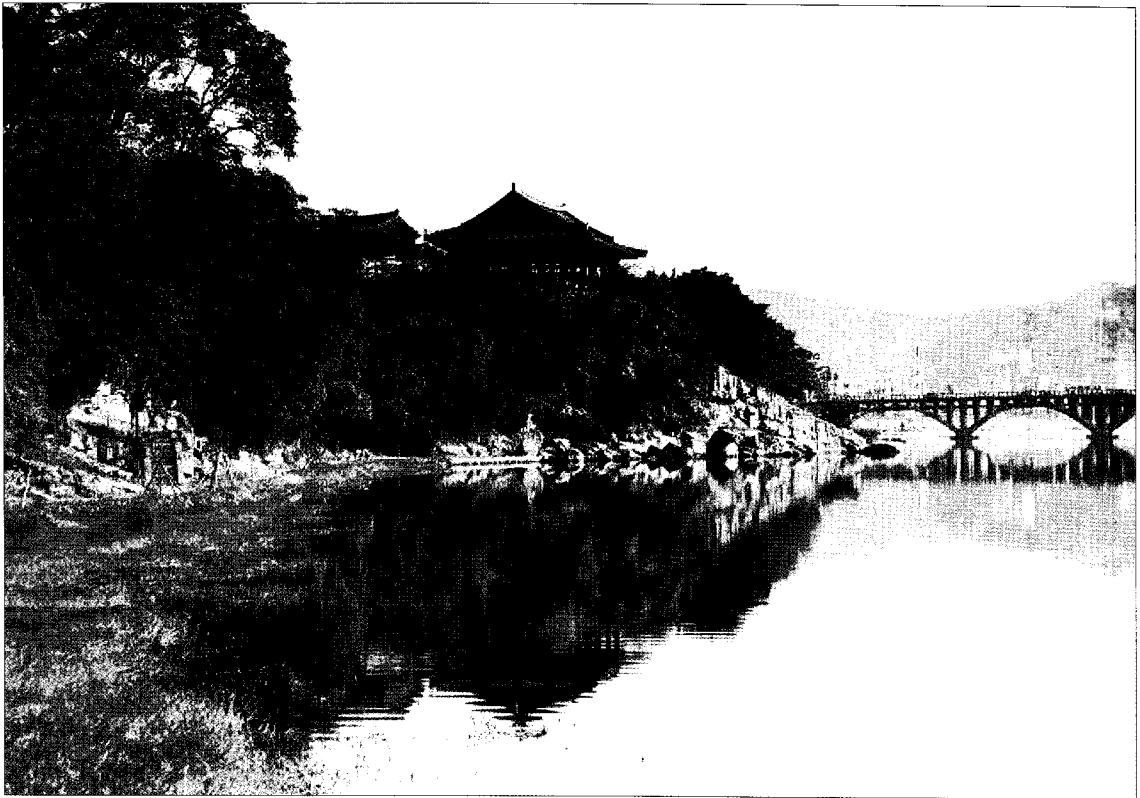
축석투는 진주성 남쪽 절벽에 서 있는 누각이다. 본래 진

주성의 남쪽 지휘소인 남장대이며 전쟁 때는 진주성의 지휘 본부로 사용하였고 평상시엔 향사를 치르는 고시장으로 활용했다.

하륜(1347~1416)이 지은 축석성 문기에는 “옛날부터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이 되풀이 되는 것은, 대개 그 하늘 운세의 성함과 쇠퇴함의 이치와 사람 사는 일의 성공과 실패가 서로 인연이 되어 그러한 것이다. 옛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할 일을 닦음으로써 하늘의 운수(天數)에 응하였기 때문에, 도둑떼가 저지른 난리가 혹 일어나더라도 끝내는 능히 우려함이 되지 않게 하였다. 나는 우리 고장의 성에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축석투는 고려 고종 28년(1241) 창건 이래 네 번의 중건(重建)과 세 번의 보수가 있었는데 6.25때 불탄 것을 1960년 진주교육보존회가 노력하여 옛 모습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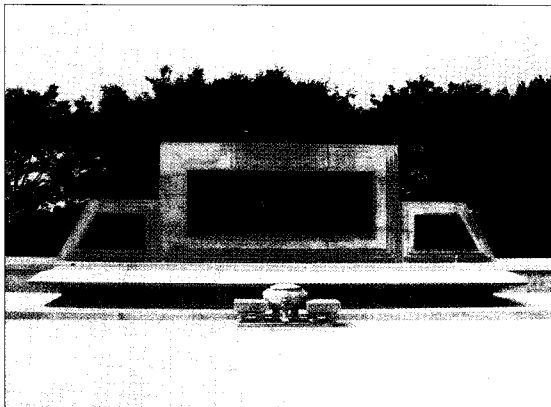
진주성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진주의 성지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거열성과 만흥산성(萬興山城)이란



〈그림 6〉 오늘날의 축석루 전경

이름으로 존재했다고도 하며 고려시대에 이르러 축석성, 조선 시대 이래로 진양성 또는 진주성으로 불렸다. 본래 토성이었던 것을 빈번한 왜구의 침공에 대비하여 고려 우왕 5년(1379) 진주목사 김증광이 석축했다고 한다.

현재 진주성 곳곳에는 축석루와 의기사(논개사당), 김시민전공비, 의암사적비, 축석정충단비, 쌍충사적비, 영남포정사 문루, 창렬사, 서장대, 북장대 등의 문화재가 흩어져 있으며,



〈그림 7〉 진주성 임진대첩계사순의단

1987년에 세운 임진대첩계사순의단은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7만 민관군을 기리는 성소(聖所)이다.

진주성 정화작업이란 이름으로 1970년대 말 집이 철거되기 전까지 성내에는 민간인이 상당수 살고 있었다. 이렇듯 남강과 진주성, 축석루는 한시도 따로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는 곳이다.

진주 사람들의, 아니 경상우도(慶尙右道) 사람들의 꿈과 낭만,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근심어린 정서와 시대마다 절실한 현실의 삶이 어우러져 어느 곁에 독특한 진주정신을 이루고 여물어져 때마다 문화라는 이름을 달고 거듭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재홍의 시어사진(고려대출판부, 1997)에는 강을 일러 창조(창조)의 신비, 죽음과 재생, 평화와 구원, 비옥과 성장, 무의식 등의 원형적 상징성을 지닌다고 했다. 강의 흐름은 인간의 흐름 또는 인생에 비유되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변화와 지속의 표현이라고 했다.

허유 시인은 시 「진주」에서 '새벽잠 끝에 정수리에 퍼붓는 냉수 한 바가지 / 우리나라 정수리에 퍼붓는 냉수 한 바가지 / 진주에 와 보면 / 그렇게 퍼뜩 정신이 들고 마는 것을 안다'라고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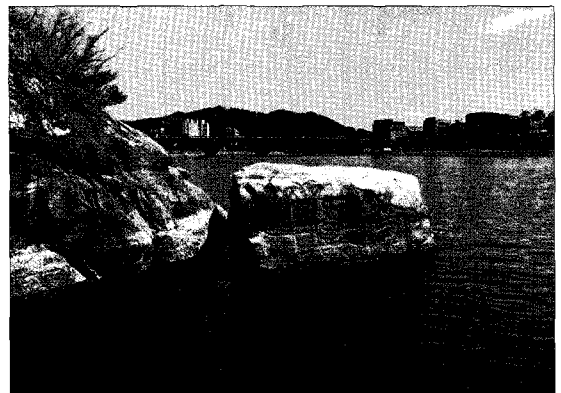
'정신은, 그것이 정신인 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만 정신이다'라고 한 이형기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하필 진주에 와서 정신이 퍼뜩 들고 마는 까닭을 궁금한 이라면 한번쯤 짐작해 볼 일이다.

조선 정조 때 규장각 대교를 거쳐 대사간을 지낸 윤행임(1761-1801)은 각 도민성을 4자로 표현했는데 영남(진주)인을 가리켜 태산교악(泰山喬嶽), 설중고송(雪中孤松)이라 하여 태산준령의 의연한 모습과 한 겨울의 눈보라를 홀로 견뎌는 소나무의 절개에 비유했다. 대체로 경상우도인을 낙선호의(樂善好義), 즉 착한 일 하는 것을 즐기고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고 했다. 진주는 예로부터 국지인재지부고(國之人材之

府庫)라 하여 "나라에 인재를 공급하는 창고"로 불릴 만큼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곳이니 조정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진주에 있다고 이를 정도였다.

"거룩한 분노는 / 종교보다도 깊고 / 불 붙는 정열은 / 사랑보다도 강하다..." 새삼 변영로의 '논개'를 다시 읽 것도 없이 왜적을 꺼안고 남강에 몸을 날려 죽음에 입맞춤함으로 되살아난 여인. 한 떨기 의로운 꽃 논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민족의 상징이다. 그러기에 진주 사람들은 논개 사후 147년 동안 끊임없이 조정에 탄원, 오늘날 의기사가 있도록 했다.

최근 바로 그의기사에 봉안돼 있던 '논개상'이 친일화가의 우두머리 김은호가 그린 미인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진주 사람들은 10년의 노력 끝에 표준영정으로 교체해 봉안했다.



〈그림 9〉 논개의 순국을 기리는 의암사적비

논개의 본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지용의 꼬드김을 칼처럼 자른 진주기생 산홍의 자결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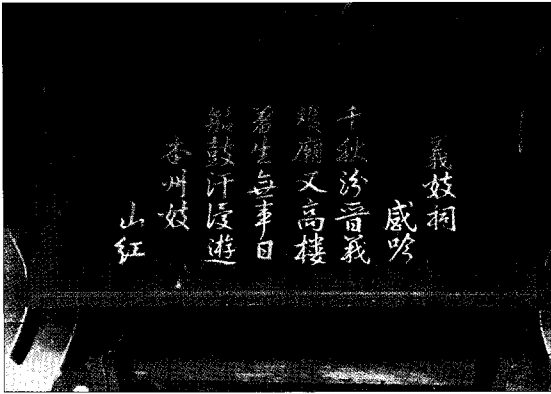
을사오적인 내부대신 이지용이 1906년 (광무10) 진주에 왔다. 이지용은 산홍을 보고 마음을 뺏겨 천금을 내놓으며 첩이 되어 달라고 했지만 산홍은 큰 소리로 "역적의 첩이 될 수 없다며 자결했던 것이다." 지금도 의기사 현관 왼쪽에는 의기사 느낌을 읊음(義妓詞感吟)이란 산홍의 한시가 걸려 있다.

천추에 길이 남을 진주의 의로움이어
두 사당(의기사, 창렬사)에 또 높은 다락이 있구나.
일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부끄러워



〈그림 6〉 논개의 국가표준 영정

피리 불고 북 치며 열배지게 놀 뿐이네.



〈그림 10〉 의기사 현판 왼쪽에 있는 산홍의 한시

논개, 산홍에 이어 진주 기생의 더 높은 기개는 1919년 3월 19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진주거리로 나섰다. 그 이름도 찬란한 '진주기생 독립단'의 모습으로 다투었다. 매일신문 1919년 3월 25일자에 "기생이 앞서서 형세가 자못 불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사실을 이렇게 실어 놓았다.

"진주는 지금도 오히려 진정이 안 되고 자꾸 소요가 일어 날 형세가 있는데 십구일은 진주 기생의 한 때가 구한국기를 휘두르고... 지금 불온한 기세가 진주에 충만하여 각처에 모여 있다더라"

진주는 '노동 독립단'과 '결연 독립단'의 이름으로도 만세 운동을 펼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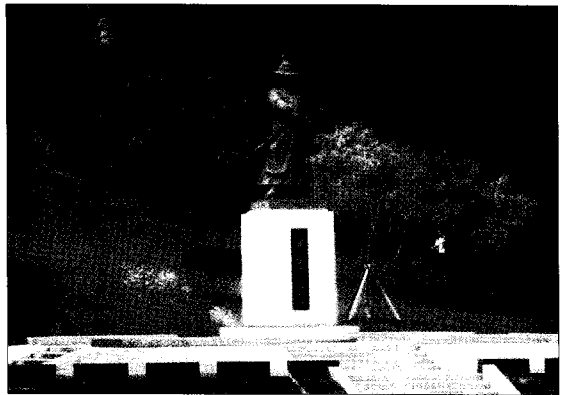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 때의 옥쇄, 7만 민관군의 순절은 또 어떠한가? 이때 몰죽음당한 처참한 결과는 청기즈칸의 유럽 원정 때 20만을 대학살한 사건 다음의 슬픈 기록으로 남아 있다.

'나는 충의를 맹세하고 진주성을 지켜 국가 중흥의 근본으로 삼을 것이니 힘을 합쳐 싸우면 천만의 섬 오랑캐인들 무엇이 두려우랴! 따르는 자 살 것이며 감히 도망하는 자 목을 베리라. 나의 엄지는 떨어지고 식지와 장지로 활을 당기다 남은 세 손가락마저 떨어질 때까지 싸우리라'

1592년 10월 김시민 장군과 함께 남녀노소가 돌을 굴리거

나 끓는 물을 퍼붓고 불을 지피 던지면서 1주일 공방 끝에 3,800명으로 왜적 3만 대군을 물리쳤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진주성 패전을 두고두고 수치로 여겨 이듬해 10만 군사를 몰아 진주성을 포위하니 제2차 진주성 싸움인 것이다.

진주성 안 김시민 장군 동상 아래 서면 그날의 외침이 살아난다. 비장한 결의로 싸움을 독려했던 장군의 호령이 지금도 울려 퍼진다.



〈그림 11〉 김시민 장군 동상

'이결이 저결이 갓결이 진주망건 또 망건 / 짝발이 희양건 도래준치 장독간 / 머구발에 덕서리 칠팔월에 무서리 동지선 달 대서리...' 1862년 진주에서는 양반들과 탐관관리들에 의한 가렴주구가 극에 달하자 죽창 든 농민들이 마침내 일어났다. 그때 주동자들이 지어 퍼뜨렸다는 위의 언가(諺歌), 즉 조 선말 노래에 깃든 의미가 심장하다. 갓과 망건은 양반을, 도래준치는 양반이 차고 있는 노비문서, 장독간은 곡식이 가득 쌓인 양반의 곳간, 음지식물은 머구(머위)는 농민, 무거운 살림살이 위에 찬 서리가 이어진다는 속 깊은 뜻이 있다.

'못 살겠다 갈아 보자'는 외침은 흔히 있어 왔지만 그 시절 농민들의 울부짖음은 목숨을 내건 항쟁이었다. 진주농민항쟁은 이후 익산과 동학농민전쟁의 불씨가 된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형평사 주지) 중에서

형평사는 말 그대로 저울처럼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그림 12) 남강의노을

1923년 진주에서 단체를 만들고 활동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진주의 선각자들은 일찍이 인간존엄과 평등사회를 여는 인 권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다시 무엇 땀에 진주에 오면 정신이 퍼뜩 드는가?

‘임금님께서 좋아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학문입니까. 풍 류와 여색입니까. 활쏘기와 말 달리기입니까. 임금님이 무엇 을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습 니다. 진실로 하룻밤 사이에 깜짝 놀라듯 깨달으십시오.

나랏일의 난맥상을 보고서 죽음과 맞서 탄핵하고 나선 ‘단 성소는 아는 바를 고스란히 실천으로 옮기고자 한 남명 조 식(1501~1572) 선생의 준엄한 꾸짖음이 아닌가. 선생의 문하 에서 수십 명의 의병장이 나왔다는 것은 선생의 실천궁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어찌 생각 있는 이라면 진주에 와서 퍼뜩 정신이 들지 않겠는가? 흔히 말하는 ‘진주정신’이 란 진주의 오랜 역사를 통한 각 시대 인물들의 삶과 사건의 맥락 속에 용해되어 진주인의 혈맥을 관류하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나 집합, 심리적 토양을 말하며 주체(主體) 호의(好

義) 평등(平等) 정신들을 통틀어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진주정신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각자와 민중들 의 노력이요 과정이다.

오늘도 남강가 대숲이파리 끝에는 카랑한 진주정신이 살 아 숨 쉬고 있지 않은가. 저 카랑카랑한 정신 속에 진주의 빛 깃, 진주의 밤새로 엮여갈 진주다운 역사와 문화가 통일을 향 해, 세계를 향해 다시 꿈틀거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있는 곳에 꽃이 있는 것과 같이 인류의 역사 가 있는 곳에 문화의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다운 우주의 섭리 가 아닐 수 없다. 여기 독립된 1주년을 기리 아로 새기고 엄연 하게 살아난 겨레의 아우성과 마음의 노래와 그 꽃의 일대성 전을 사도 진주에 이룩하여 젊은 전 영남의 정신으로 개천의 제단 앞에 삼가히 받들기를 뜻하는 바이다.

단기 4282년(1949) 제 1회 창제 취지문 중에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제전을 기능주의와 소재주의로 이름

만 올리는 축제가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에서 순정한 겨레의 일체 염원을 올리는 한 장의 소지와 같은 불사름이 되도록이 끌어 가고자 한다. 참으로 예술 문화는 통일로 가는 에너지이고 겨레를 지키는 아름다운 지렛대이다.

2004년, 제 54회 개천예술제 제2의 창제 취지문 중에서

전국 예술제의 효시가 되어 올해 58회째를 맞이할 개천예술제의 새로운 비전도 나래를 편다.

1592년 임진왜란의 그 옛날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인 '진주대첩' 성 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의 군사신호로 풍등(風燈)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강을 건너려는 왜적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이는가 하면 성내의 병사들과 백성들이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 수단으로 두루 쓰인 진주 남강 유등은 의롭게 순절한 7만 민관군의 매운 얼과 녀을 기리는 진주남강 유등축제로 자리 잡았는데 국가지정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되어 10월 초 남강물을 붉게 물들이게 될 것이다.

백두산 진달래 한라산 유채꽃 // 지리산 큰 달맞이 / 떠돌이 잡동사니 여기 다 모여라 / 두역사니 뭉 달이도 나오너라 / 우리 함께 봉화불을 지피자 / 한때는 짝사랑, 그리움도 되었다가 / 지금은 전부요 솟제 통곡인 / 통일의 봉화불을 지피울리자 / 사람은 사람끼리 살 부비고 살아가게 살아서 끝끝내 꽃피우는 우리의 역사 / 시작이자 마지막일 한 나라에 이르는 망진산 통일맞이 봉화불을...

- 박노정의 시 〈시작이자 마지막일〉 중에서

오랜만에 망진산 봉수대에 오르니 오늘따라 저 멀리 지리산 영봉이 꿈틀거리고 눈 아래로 진주성과 축석루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저만치서 가을이 오고 있다. 가보자. 지금도 뭐라고 소곤거리는 강으로 가서 천년을 또 그렇게 흘러갈 강이 하는 말을 거둬 들으려 한다. 🍂

